

공정위, 섬유·화학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섬유 등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4월2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섬유, 화학, 철강, 기계산업 분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기업들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돼 외국에서 부과받은 벌금이 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손해배상 소송, 인신구속 등이 줄을 잇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2010년 들어 3번째 교육이다.

공정위는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요 국가에 진출한 곳을 대상으로 현지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04/28>